

후대에게 가르쳐라

신명기 6:4-9, 디모데후서 3:14-17

최정웅 목사님

오늘은 어린이주일이다. 램넛주일이라고도 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후대가 죽어가는 사실을 보고 이 저주를 뒤집을 천명을 붙잡게 하셨는데, 우리는 후대를 살려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램넛으로 일으키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한다. 우리 총회와 우리 교회도 주제를 같이 해서, 이 주제를 붙잡고 인도받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후대 살릴 모든 참사랑 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기도한다. 특히 미래를 살릴 주역인 우리 모든 어린이와 램넛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반드시 전달하고 각인시키라고 하는 부탁의 메시지이다. 후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발견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이 점점 견고해지고 밝아져야 하는데, 점점 희미해졌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언약을 놓쳐 버리고, 오히려 애굽의 우상 문화에 깊이 빠져가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이, 출애굽기 3:18에 모세에게 약속으로 주신 양의 피를 발라서 복음을 회복한 유월절이었다. 세상 속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았는데,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유월절이다. 이렇게 과거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확실한 약속을 주셨다.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메시아 오실 땅, 약속한 언약이 성취될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을 약속하셨다. 세계복음화할 땅으로 가게 될 것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마침내 들어가게 될 것도 약속하셨다. 그런데 그 일이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단번에 순간적으로 받지만, 성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남자, 그 여자의 인생이 걸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광야의 나그네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기도 하다. 우리는 필그림, 나그네다. 순례자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간 머물게 하셨는가? 그 중요한 목표 하나가, 후대를 살리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였다. 가나안을 정복할 후대들에게 두 가지를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1. 반드시 버려야 할 것

그 첫 번째는, 반드시 버려야 한다 하는 것이 있었다. 이것 버리는데 40년이 걸린 것이다.

(1)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보면서, 사단이 각인시켜 준 사상을 계속 주입받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숭배로 각인된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다. 종교생활이 각인되어 있었다. 하나님 없는 지식, 사상, 철학이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이것을 빼내려면 광야가 필요했다. 사투를 해야 할 고난이 필요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광야를 '광야학교'라고 표현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릎의 학교를 다녀야 한다고 한 사람도 있다.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잘못된 각인된 것을 빼낼 수가 없다. 지금도 우리 후대들은 학교에서 불신자 선생님들에게 틀린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다. 복음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자라고 있다. 매스컴에서 다루는 이야기가 대부분 틀린 이야기들이다. 인간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진화를 가르친다. 증명된 바도 없는데, 유추한 이야기를 증명된 사실인 것처럼 계속 가르치고 있다. 창조론은 종교일 뿐이라고 한다. 진화론 창조론 두 가지 학설이 있다는 것을 사실대로 말해 주어야 하는데, 잘못된 것을 계속 가르친다. 아이들이 보는 책이 거의 다 뉴 에이지, 프리메이슨들이 만든 것들이다. 친구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대부분 요한복음 8:44, 속임수를 쓰는 마귀에게 속한 이야기다. 귀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라지 않나?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

(2) 두 번째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400년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 깊이 뿌리내려진 것이 노예근성이다. 시키지 않으면 절대 안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36년 간 속국으로 살면서 이게 뿌리내려 버렸다. 감독관이 없으면 안 한다. 주인이 안 보면 안 한다. 이게 그때 생긴 나쁜 근성이다. 보든지 안 보든지 내게 맡겨진 것을 제대로 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일하면서 즐거워야 한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없고 그걸 의지도 없는 것이 노예다.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 노예다. 문제는, 노예에서 해방되었는데도 아직 정신적으로 여기에서 못 빠져나왔다. 이게 노예근성이다. 노예살이만 배우다 보니,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되어도 다른 사람들을 노예 다루듯 한다. 다른 사람들을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이 누림인 줄 안다. 그러면 거기에 눈치를 보면서 기대서 살아가는 것이 노예근성이다.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근성을 바꾸는 데 40년이 걸렸다. 이 뿌리를 빨리 뽑아야 세계화될 수 있다. 세계 살릴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라.

(3) 세 번째 버려야 할 것이 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면서 체질되어 있던 원망과 불평, 불신앙의 광야 체질을 버려야 한다. 말만 하면 불신앙이다. 아이들이 그러지 않나?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고, 절대 감사를 안 한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면서 불평을 일삼는다. 이 불신앙은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버려야 한다. 사단이 가져다준 틀린 각인, 세상 속에서 잘못 내려진 틀린 뿌리, 연약한 육신의 수준 때문에 자주 반복되는 불신앙의 체질을 무너뜨리는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나에게 와 있는 버릴 것을 찾아내시기 바란다. 그래야 이것이 후대에게 절대 전달되지 않게 된다. 후대를 보라. 잠자는 것까지 똑같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잘못을 내던지는 것이다. 그래야 후대가 세계를 위해서 살 수 있다. 인류를 위해서 살 수 있다. 우상, 노예근성, 불신앙의 체질, 세 가지를 버려야 한다.

2.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

두 번째는, 버리지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을 찾아야 한다.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했다.

(1)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가? 신명기 6:4-9에서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세마리라고 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 이시니." 나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만물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혼란이 오고 저주가 오는 것이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심을 후대에게 가르쳐서, 그분만을 섬기도록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전달해야 한다. 이 말은, 잡신, 다른 신, 거짓 신이 있다는 말이다. 그런 것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았던 우상은 거짓 신이요 헛된 신이요 잡신이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이에게 심기 위해서 광야가 필요했다. 희한한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안 주는데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경우가 있다. 좋은 것만 챙겨주는 부유한 부모를 자식들이 원망하고, 심지어 살해하는 일까지 생기기도 한다. 무엇을 전달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는구나.' 이것이 보여져야 한다. 우리교회 옆에 장미가 피려고 한다. 이 장미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꽃을 보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겠나?" 그러면 아이는 꽃동산에 갈 때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삶, 우리의 말의 표현 하나하나에서 이것이 녹아들어야 한다. "엄마, 정말 하나님 믿나? 기도 좀 해라!"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세상 신인 마귀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완전히 죽지 않았다. 이 존재가 자기 부하인 귀신들을 통해서 모든 불신자와 불신 세상을 장악하고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 이것을 보고 우리 후대가 속게 되면 안 된다. 하나님보다 원수가 더 큰 것처럼 말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요, 마귀, 귀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가 타락한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 와도 괜찮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나와, 너와 함께 하신다." 알려주어야 한다. 학교에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 아이를 지켜 주십시오." 기도해 주어야 한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안 돼도 괜찮다.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 너에게 다른 재능을 주셨어. 찾아보자." 계속 격려해야 한다. "그것도 못 하나, 바보야?" 이런 저주를 계속 하면 아떡하나. 화가 나고 욕이 나오더라도 축복을 해라. "야 이 잘 될 놈야, 세계를 정복할 놈야, 이 나라를 구할 놈야." (웃음) 그래야 정신을 차릴 것 아닌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이 원수는 제압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을 모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사도행전 4:12에,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주님이 명하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서 부활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신명기 6:4은, '오직'의 결론을 내려주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이다. '오직'의 결론이 있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후대가 오직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체험해야 한다. 다른 말로, 이 오직에 대해서 일심 해 버려야 한다. 그리스도로 끝이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만 근심 있으라." 노래는 해 놓고 오만 근심을 다 한다. (웃음) 한 번만 제대로 심어주면 믿음이 각인될 것이다. 소망이 각인될 것이다.

(2) 신명기 6:5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해야 함을 전달해 주라는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

는가? 전에는 생활비를 받으면, 십일조 봉투에 넣어서 성경 속에 집어넣었다. 다 쓰고 남은 것을 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했다. 그것을 아이가 보면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이게 뭐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야. 너도 돈을 벌게 되면 반드시 이것을 제일 먼저 해야 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성이다. 냅다 먼저 써 버리고 돈이 있나 없나 해마다가 현금 가지고 갈등하는 것을 아이가 보면, 아이들은 그대로 배우게 된다. 록펠러는 나이 여섯 살에, 어머니를 통해서 이 현금을 바르게 배운 것이다. 전에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 식사를 할 때마다, 오늘 먹을 양식을 한 주먹 따로 떼어내서 모은 것이다. 이것을 성미라고 해서 교회에 가지고 왔다. 성미부장이 이것을 모으면 교역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았다. 나도 먹고 살았다. 여러 가정에서 자기 형편대로 드리니까, 어떤 것은 썩은 것이 있었다. 또 어떤 것에는 쌀벌레가 많이 있었다. 그런 것을 보면, 성미부장은 자신이 헌신해서 그것을 제일 좋은 쌀로 바꾸어서 가지고 왔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이것을 아이들이 다 보고 자라는 것이다. 램넛트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진부를 드린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가 하는 것을 본 대로 아이들은 한다. 십일조 안 하는 집의 자녀들은 십일조를 안 한다. 그러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겠는가. 여러분이 그것을 분별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질을 가지고 설명해서 미안한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자녀에게 바르게 심어야 한다. 안 그러면 후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절벽 시대가 된 것이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60%라고 하지 않나.

(3) 이것이 후대에게 24시가 되도록 새겨주어야 한다. 이것을 지속이라고 한다. 여호와 하나님에 오직 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을 생명을 걸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못하도록 시간마다 항상 말하라는 것이다. 항상 보도록, 항상 읽도록, 항상 듣도록 만들라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6:6-9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계속 가르쳐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각인되도록, 손목과 미간에도 매달고 붙이고, 집 문에도 붙이라고 했다. 유대인들은 집 문을 나설 때 그 기록된 말씀을 읽고 기도했다. 들어올 때도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다. 그것을 손목에 매고 모자에도 맨 것이다. 여러분, 24시 전달되도록 만들면 반드시 후대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① 그래서 이것을 24시 하도록 만든 것이 세 절기였다. 복음을 삶으로 체험하게 해 주는 것이었다. 유월절에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무교병을 먹도록 했다. 수장절에는 아예 텐트를 치고 살도록 만들었다. 뉴욕에서는 유대인들이 아파트에서 따로 텐트 칠 수 없으니까, 베란다에 텐트를 치고 한 주간 거기에서 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를 가르친다고 한다. 덴마크 사람들은 빵을 먹을 때 하나는 반드시 검은 빵을 넣는다고 한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 먹던 것을 집어넣는다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어려울 때 이런 빵을 먹어 가면서 땅을 개간해 내고,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자꾸 보여주어야 한다. 유대인들이 반드시 그렇게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삶으로 체험하도록 만드는 것이 유월절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체험하라는 것이 수장절이다. 성령충만을 후대와 같이 삶으로 체험하도록 만들어놓은 것이 오순절이다. 삶의 현실 체험을 가지고 후대에게 전달하라는 것이다.

② 이것을 1년에 세 번 만 하지 말고, 매주 하도록 만들어놓은 것이 안식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예배 속에서 계속 체험하라는 것이다. 안 그러면 또 우상에 빠지니까.

③ 이것을 매일 체험하고 계속 체험하도록 바라보게 한 것이 성막이다. 성막을 가운데 세우고, 동서남북에 텐트를 치고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잘 하는 것 같다. 자꾸 교회 근처로 이사를 해 오고 있다. 우리가 빨리 어린이 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다. 가능한 분은 이것을 두고 재능기부도 해서, 빨리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인가를 안 받은 곳에 아이를 보낼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채우신다. 1년 내내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그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목상하게 한 것이 성막이다. 이것이 광야길에서 주신 후대 살릴 전략이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중요한 대회 속에서 복음을 체험시키고, 주일예배에 자녀와 함께 최고로 성공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해야 되겠다. 아이들을 계속 격려하라. 김용기 장로님이 그런 말을 했다. 자기가 새벽기도를 하러 나가는데 아들이 안 나오면, 아들 부부 머리맡에 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찬송을 불렀다고 한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같은 고생이다." 그러면 1절이 끝나기 전에 후다닥 일어나서 나왔다고 한다. (웃음) 얼마나 복음적인가. "이놈들아, 애비는 일어났는데 너희는 왜 안 나오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말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농군학교를 하는데, 온 가족이 다 모여와서 함께 일한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절대 놓치지 말고 반드시 붙잡고 전달해야 하는 것이 이 세 가지였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각인시키고 뿌리내려 체질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했다. 이 복음운동이 세계복음회의 그날까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에게 광야 시간표가 올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지, 무엇을 결단하라고 하시는 것인지를 봐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후대에게 바른 각인을 전달할 수 있겠는가? 그 전달을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다.

(1) 지금 유대인들은 일곱 가지 전략을 가지고 후대를 키우고 있다.

- ① 세마를 암송하게 하고, 토라를 가르치고, 탈무드를 가르친다. 탈무드는 랍비들이 토라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지혜서를 말한다. 이런 것을 가르친다.
- ② 위인전을 반드시 자기 전에 한 권씩 읽어준다고 한다. 청년 때 영화를 보는데 이런 장면이 있었다. 어린아이 방이 있고 침대가 있다. 아이를 눕혀주고 손을 붙잡고 엄마가 기도해준다. "하나님, 밤에도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단잠을 자게 해주세요. 아침에는 천사를 보내셔서 일어나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고는 이불을 덮어주고, 잠이 드는 것을 보고 불을 꺼주는 엄마의 모습이 거룩하게 보였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가. 성경을 읽다가 너무 감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여준다면 신앙 교육은 끝나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다른 것을 보여준다. 자기도 못 했으면서 100점 받아오라고 아이를 쪼아대고 있지 않나?
- ③ 세 절기를 지키게 한다.
- ④ 안식일을 지킨다.
- ⑤ 성인식을 한다.
- ⑥ 회당에서 가르친다.
- ⑦ 풋지를 만들고 엘리트를 모아서, 포럼하면서 성장하도록 환경을 만들고 있다. 우리가 장학 현금 하는 것이 귀한 일이다. 장학금을 줄 때 내 아이 주려고 하지 마라. 진짜 우리 아이들은 내 아이, 네 아이 할 것 없이, 진짜 필요한 아이에게 전달해야 한다. 외국 유학까지 보낼 만큼 응답받으면, 이것이 아이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아, 우리 교회가 인재 세우려고 마음을 담은구나. 나도 빨리 돈 벌어서 장학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2)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는 복음 서밋 전략을 가져야 한다.

- ① 성경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②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 ③ 세 절기의 핵심인 복음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
- 나는 믿음의 책을 보다가 목사가 되었다. 믿음의 위인들의 전기를 읽다가 감동을 많이 받았다. '아, 위인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위인들의 공통점이 있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인류를 위해서 살았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사셨다. 그러니 모든 왕, 장군, 학자가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다. 여러분의 의식 속에 이게 들어있어야 한다.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집단을 위해서만 일할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
- ④ 안식일을 넘어서서 주일예배에 성공하는 것을 체험해야 한다. 외국 사람들은 주일에는 아이에게 특식을 차려 준다. 연미복을 입힌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가르친다. 오늘은 대통령 뵙는 날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뵙는 날이라는 것이다.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 ⑤ 램넛트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전달해 주고
 - ⑥ 회당 대신에 다락방, 전문교회, 지교회를 통해서 램넛트를 양육해야 한다.
 - ⑦ RUTC를 통해서 서밋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3) 이 모든 것의 열쇠가 무엇인가? 나는 이번에 RU를 위해서 현금했는데, 110만 원이 나왔다.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다. 우리 단체가 500년, 천 년, 주님 오실 때까지 원색 복음 전하는 단체가 되기를 바란다. 마음을 담아야 한다. 1년에 한 번 하는 때다. 진짜 마음을 담아야 한다. 후대와 같이, 후대와 함께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응답의 기회가 대회 때 있는 것이다. 이번 세계램넛트대회는 일산에서 한다. 집에서 다닐 수도 있다. 나물라라 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으시기 바란다. 당회에서도 몇 명을 후원하기로 했다. 교역자들이 추천하면 도와주기로 했다. 너무 잘 한 일이다. 가족과 함께 참여하면서, 유대인의 각인 전략을 뛰어넘는, 후대 살리는 응답을 체험하기를 축복한다. 후대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언약을 전달하는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사랑하는 주님입니다. 참사랑교회가 램넛트를 사랑하시는, 제대로 키우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며, 가정마다 후대들이 축복을 받는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